

#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와 미 제9군단의 지암리 포위 및 화천 진격작전

장 삼 열\*

1. 머 리 말
2.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 배경과 전략
3. 미 제8군의 평가와 작전기도
4. 미 제9군단의 작전환경 평가와 작전계획
5. 전투 경과와 결과
6. 작전적 분석
7. 맺 음 말

## 1. 머 리 말

전사연구(戰史研究)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현세대 간부들에게 전쟁의 간접경험을 통하여 전쟁 감각을 익히고 전투적 사고를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즉 전사연구를 통하여 전쟁의 본질과 양상을 이해하여 미래전(未來戰)에 대비하고, 군사문제에 관한 광범하고 전문적인 군사

---

\* 육군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과장

이론과 지식을 획득하여 전투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리델하트(Basil. H. Liddell Hart)는 “사람들은 전쟁에 관하여 말하기 좋아하나 전쟁을 말하는 자는 적다”라고 지적하면서<sup>2)</sup> 일반 사람들이 보다 더 전사에 대해 깊이 연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 군은 전투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6·25전쟁사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전투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찰력(coup d'oeil)을 갖춘 군사적 천재(Military Genius)<sup>3)</sup>와 전투감각을 갖춘 고급장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미 제9군단의 지암리 포위 섬멸전과 화천 진격작전은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 기간 중동부 전선인 가평과 화천 일대에서 벌어진 중공군과의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소장)은 용문산 지역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곧바로 공세이전(攻勢移轉)하여 지암리와 화천 일대에서 후퇴하는 중공군 제60군, 제27군, 제15군, 제12군의 패잔병을 포착 섬멸하였다.

연구 배경은 지금까지 유엔군의 제3차 공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고 중공군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제60군 예하 제180사단의 붕괴과정<sup>4)</sup>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전례나 보고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공군 제180사단의 퇴로를 차단한 부대와 연결일시도 기록마다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고 한국군 제6사단에 의한 화천발전소의 확보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1973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용문산-화천 진격전’이나 ‘미 제9군단의 가평-화천 진격전’에 기술된 내용은 정확한 출처나 각주가 없을 뿐 아니라 군사좌표 없이 지명만으로 기록되어 정확한 전투경과 확인이 제한되고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사료와 2006년 8월 평문으로 비밀 해제(解除)된 미 제9군

1) 정토웅, 『군사사 연구 방법론』(전사편찬위원회, 1991), pp. 22-23.

2) 정토웅, 위의 책, p. 33에서 재인용.

3) Carl Von Clausewitz 저, 김만수 옮김, 『전쟁론』(서울: 갈무리, 2006) pp. 111-121.

4) 중공군 사료에 의하면 포위된 제180사단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미 제9군단에게 지암리 일대에서 전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단장은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 王樹增, 『中國人民志願軍 征戰紀實』(해방군문예출판사 2001), pp. 763-765;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서울: 고려원, 1992), pp. 239-242.

단 지휘보고서<sup>5)</sup>와 최근 입수한 중국자료<sup>6)</sup>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범위는 유엔군의 제3차 공세 중 미 제9군단의 미 제7사단, 제24사단과 한국군 제6사단이 수행한 지암리 포위섬멸전과 사창리와 화천 점령과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략적 배경, 작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작전 수행과정 및 전투결과에 이르기까지 앞서 기술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중공군 제180사단의 격멸 과정과 한국군 제6사단에 의한 구만리의 화천발전소 확보과정을 1차 사료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정확한 작전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도는 1953년 지도를 참고하여 당시 없었던 춘천호, 주요 하천의 변화, 명칭이 변경된 도로 등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전경과상 주요 지점은 좌표를 병기(併記)하여 차후 연구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지휘관의 노력과 운용술을 작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주요지휘관의 작전지도(作戰指導), 작전한계점과 작전지속능력의 중요성, 기동과 템포의 효과, 통합화력운용, 심리전 등이다. 특히 중공군의 작전지속능력의 한계를 이용한 미 제9군단의 반격작전과 보전 특수임무부대(TF: Task Forces)를 활용한 작전적 기동과 템포의 이점, 중공군의 반응 등을 심도 깊이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5) HQs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BOOK III, VOL 1*(정보보고서)와 *VOL 2*(작전보고서).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는 2006년 8월 1일부로 군사2급 비밀에서 평문으로 재분류되었고 필자는 사본을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을 통해 2010년 1월 입수하였다.

6) 중국인민지원군제60군, 『抗美援朝戰爭史』(중국군제60군, 1958): 楊鳳安, 王天成 공저, 『北緯38度線-彭德懷與 朝鮮戰爭』(해방군출판사, 1999): 杜平, 『在志願軍總部』(해방군출판사, 1989),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 『抗美援朝戰爭的經驗總結: 戰爭簡史』(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 1956): 王樹增, 『中國人民志願軍 征戰紀實』(해방군문예출판사 2001): 徐焰, 『第一次較量: 抗美援朝戰爭的歷史回顧與反思』(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8):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 군사연구소 역,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원제: 抗美援朝戰爭的經驗總結)』(육군본부군사연구소, 2009) 등.

7) 『작전: 미 야전교범 3-0』에 의하면 '전쟁수준은 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한다. 작전적 수준은 전략적 최종상태의 달성에 전술적 부대들의 활동을 연계시킨다.'(육군대학, 2008, pp. 175-184)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발간한 『작전술: 교육참고 8-3-18』에는 '작전술은 작전적 수준에 적용된다. 작전술은 설정된 작전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략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목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육군교육사령부, 2007, p. 총-2)

## 2.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 배경과 전략

### (1)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 전략적 배경

중공군 제5차 제1단계 공세가 실패하자<sup>8)</sup> 팡더화이(彭德懷)는 1951년 4월 28일 지원군의 주력을 동쪽으로 전환하여 동부전선의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5차 2단계 공세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sup>9)</sup> 당시 중공군은 유엔군에 의한 상륙작전을 방지하고 유엔군의 반격 전(前)에 공격하기 위해 2차 공세시기를 앞당겨 5월 16일 전(全) 전선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다.<sup>10)</sup>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자 전반적인 반격작전을 준비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약화된 시점에서 캔사스(Kansas)선을 다시 점령하고 철원-금화-평강의 철의 삼각지대(三角地帶)까지 진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월 12일 리지웨이(Matthew A. Ridgway) 유엔군사령관이 공중 정찰과 지상전투의 보고를 받고 공산군이 72-96시간 이내에 대규모 공세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1)</sup> 리지웨이 사령관은 공산군의 주력이 중서부전선에 집중될 경우 서울이 두 번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급히 훈령을 내려 공격을 중지하고 전 부대로 하여금 방어준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8) 제5차 제1단계 공세는 중공군이 1950년 4월 22일-29일까지 4개 병단을 투입하여 서부전선의 유엔군 5개 사단과 3개 여단을 섬멸하려 하였으나 작전지도능력의 부족과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 등으로 작전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오월공세』(서울: 서라별인쇄, 1988), p. 516에서 재인용.

10) “이번 전역은 준비가 지나치게 짧았다. 유엔군의 상륙계획을 파괴해야 된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마음만 급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 pp. 239-242.

11) 제임스 F. 슈나벨, 『한국전쟁』 제2권, p. 443.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p. 511)에서 재인용.

## (2) 중공군의 초기 작전결과 평가

중공군은 제5차 제2단계 공세 시 주력을 중동부로 지향하여 동부전선의 한국군 4개 사단을 포위섬멸하고, 중부의 한국군의 방어선인 용문산-양평선을 돌파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3개 군(12, 63, 64군)을 미 제9군단의 정면으로 투입하였다. 제12군은 우익 제10군단과의 지경선을 돌파코자 춘천-홍천 축선을 따라 공격하였으며 제63군은 한국 제6사단의 정면인 용문산지역으로 집중공세를 취하고, 제64군은 미 제24사단의 정면인 청평이서(以西)의 산악지대를 돌파하려 하였다.

중공군은 제9병단이 동부에서 한국군 제3군단의 주력을 포위하며 기분 좋은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동부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중동부에서는 용문산 전투에서 한국군의 제6사단에 의해 제63군이 전투력이 완전 소멸되었고, 홍천 북방의 병커고지(778고지) 일대에서 미 제2사단에 의해 제12군의 공격이 좌절되자 중공군 지도부는 유엔군의 공세가 우려되었다. 이런 와중에 미 제3사단이 운두령 지역에서 반격을 시도하자 하진부리 부근까지 깊숙이 남진한 중심 기동부대의 퇴로가 문제가 되었다.<sup>12)</sup> 또한 유엔군이 보병과 전차를 앞세운 특임부대(TF)를 운용하여 신속하게 북진을 실시하자 중공군 지도부는 크게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 (3) 중공군의 차후 작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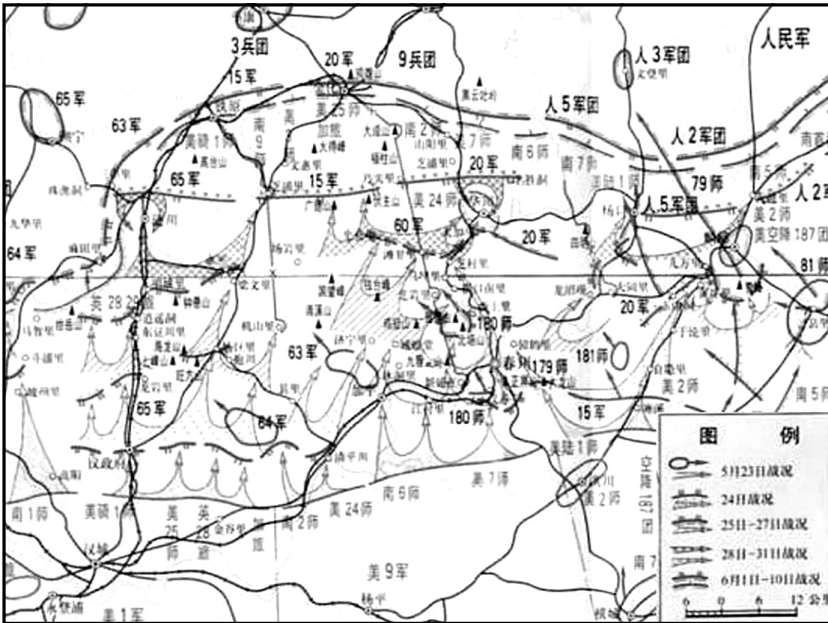
자체평가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팡더화이(彭德懷) 지원군총사령관은 5월 21일 제2단계 공격작전을 중지하기로 결심하고 공격부대 주 병력을 북쪽으로 철수하도록 긴급 명령을 하달하였다.<sup>13)</sup> 제5차 제2단계 전략목표의 달성

12) 중국인민지원군 제27군편, 『중국인민지원군: 제27군전사』(중국인민군지원군, 1955), 부록, p. 42;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현리-한계전투』(2009), pp. 104-106.

13) 이러한 상황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5월 22일 받아냈음. 행정부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서울: 행정자치부, 2002), p. 121;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p. 308-309.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공군은 홍천강 북안-북한강 북안-38선 이남에서 유엔군의 공격을 가급적 저지하면서 주력을 급속히 38선 이북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은 광주산맥의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38° 선 북쪽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코자 기도하였다.

〈요도 1〉 중공군의 차후 작전 기도(1951. 5. 23 - 6. 10)



\* 출처: 『抗美援朝戰爭史 第二卷』(중국군사과학원)

이에 따라 중공군은 용문산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60% 병력 손실)을 입은 중공군 제63군(장, 정유산)은 가평 북쪽의 산악지대에서 거점방어(據點防禦)를 시도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중공군 제12군(장, 증소산)은 홍천과 춘천 간의 금병산 일대에서 분산되었던 병력을 재규합하여 미 제7사단의 진격을 막고자 하였다.<sup>14)</sup> 특히 후퇴하던 일부 중공군은 춘천과 사창리 간

1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 337.

의 산악지대인 수덕산(794고지)-북배산(869고지)-몽덕산(526고지)-매봉(鷹峰: 1,436고지)-화악산(1,287고지) 일대에 저지진지(沮止障地)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방어를 하고자 지엄리 부근으로 집결하였다. 예하부대에 집결하라는 암호 신호를 하달하였고 군데군데 도로의 교차점과 주요 고지에 일련의 표식을 남겨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sup>15)</sup>

### 3. 미 제8군의 평가와 작전기도

#### (1) 미 제8군의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평가

유엔군의 판단보다 조기에 실시된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로 인해 유엔군의 초기 피해는 막대하였다. 동부 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한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의 방어선이 조기에 붕괴되고, 5월 17일 현리 오마치 고개가 중공군에게 점령되었다. 5월 18일에는 그 포위망 내 한국군 제3군단 주력의 퇴로가 차단되어 붕괴 직전에 있었다.<sup>16)</sup> 5월 20일에는 중공군이 하진부리까지 진출하면서 중동부전선에 중심 60-70km에 달하는 커다란 돌파구가 형성되는 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공군의 주공이 중동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위기감을 느낀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책임지역을 우측 제10군단 지역까지 확장하고 가용한 예비대인 미 제3사단을 긴급 투입하여 운두령 일대에서 역습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조치

15) 주요 도로에 61, 63, 64, 75 등 숫자가 새겨진 표지판(road marker)을 운용하였다.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0호: 보병제6사단, 『청성투혼사』(제6사단, 1993), p. 353.

16) 한국군 제3군단은 5월 26일 해체되고 한국 육군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한국군 사단에 대한 작전권마저 미 제8군사령부에 넘어가게 되었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Qs, *Command Report, Section I: Narrative* (1951), p. 22.;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Columbia: Naval Institute Press, 2003), pp. 892-893.; 백선엽, 『군과 나』(서울: 시대정신, 2009), pp. 230-231.

를 취하면서 전선을 안정화시켜 나갔다. 중부전선에서는 한국군 제6사단이 용문산에서 성공적인 방어로 중공군 제63군의 전투력을 완전 소진시켰고<sup>17)</sup>, 미 제2사단이 병커고지에서 중공군 제12군의 공격을 완전히 격퇴하였다.<sup>18)</sup>

5월 23일에 우측의 미 제10군단이 반격에 가담하고 특히 제10군단의 게르하르트(Gerhardt) 보전 특수임무부대(TF)가 소양강변으로 진출하자 중공군 제12군, 제15군, 제27군, 제60군의 패잔병이 제9군단 작전지역인 지암리 일대로 집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 제9군단이 추격전을 전개하는 동안 중공군 제63군 이외에도 그 몇 배가 넘는 새로운 적과 직면하게 되었다.<sup>19)</sup>

## (2) 제8군의 작전기도

중공군의 5차 2단계 공세가 No Name선(대포리-홍천-용문산-금곡을 연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저지되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대장 Ridgway)와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중장 Van Fleet)는 5월 19일과 20일 회동에서 공세이전(攻勢移轉)할 것을 결심하였다.<sup>20)</sup> 리지웨이 사령관은 20일 저녁 미합중국 합동참모본부에 제8군의 반격계획을 보고하면서 “사기가 양호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Morale excellent and Confidence high).”고 결론지었다.<sup>21)</sup>

17) 당시 중공군 제63군은 예비사단까지 투입하여 용문산을 점령하려 했으나 한국군 제6사단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작전보고에 의하면 한국군 제6사단이 용문산 전투에서 5월 19일-21일 3일 동안 중공군 5,967명을 사살하고 29명을 생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미 제2사단은 홍천 북방의 병커고지(778고지) 일대에서 5월 17일 야간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해오는 중공군 제12군(제31사단, 제34사단, 제35사단)의 공격을 포병과 항공화력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효과적으로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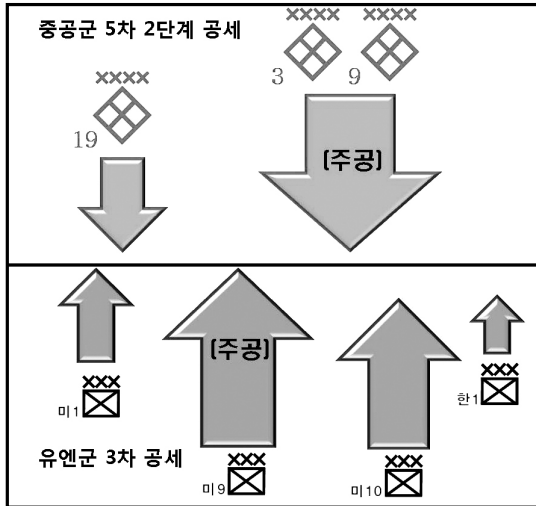
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제6사단』 제53권, (육군본부, 1987), p. 903. 제9군단 전방의 적은 총 57,000명으로 추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제187사단: 8천명, 제188사단: 9천명, 제189사단 8천명, 제179사단 9천명, 제180사단 8천명, 제15군, 27군, 12군, 20군의 패잔병 약 15,000명이다.

20)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3), pp. 884-885.

21) Righway to JCS, May 20, 1951, JCS NA. Clay Blair,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3), p. 885에서 재인용.

미 제8군의 공세 목적은 캔사스(Kansas)선을 재확보함과 아울러 후퇴하는 공산군에게 최대의 손실을 입히는 것이었다. 가능하다면 38도선 너머 철의 삼각지대까지 점령하려고 하였다.

〈요도 2〉 피아 작전 지도



\* 출처: 직접작성(2010. 3월)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우선적으로 미 제9군단과 10군단 경계선을 동쪽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미 제9군단이 신속하게 화천으로 공격하여 미 제10군단 정면의 중공군의 증강을 저지하면서 미 제10군단의 역습 시 퇴각하는 중공군의 철수를 차단하고자 하였다.<sup>22)</sup> 미 제8군은 제9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춘천-화천도로와 화천호 서부지역의 도로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한 반격 계획을 작성하여 일명 디토네이트작전(Operation Detonate)이라는 암호명으로 5월 20일 각 군단에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Rad, GX-5-3699 KGOO, CG Eighth Army to C/S ROKA, 21 May 51.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 472에서 재인용.

“①미 제1군단은 조공으로서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구 캔사스선 북쪽을 향해 공격하라. ②미 제9군단은 주공임무를 수행하며, 춘천 좌측과 화천을 연하는 선까지 과감한 공격을 실시하라. 미 제24사단과 미 제7사단, 한 제6사단, 한 제2사단은 공격을 실시하여 가평 북방에서 합류하라. 영국군 제28여단은 제24사단을 증원한다. ③미 제10군단은 초기 한계령을 고수하다가 2-3일 후에 공격을 실시하라.”(이하 생략)<sup>23)</sup>

#### 4. 미 제9군단의 작전환경 평가와 작전계획

##### (1) 작전환경 평가

###### 1) 지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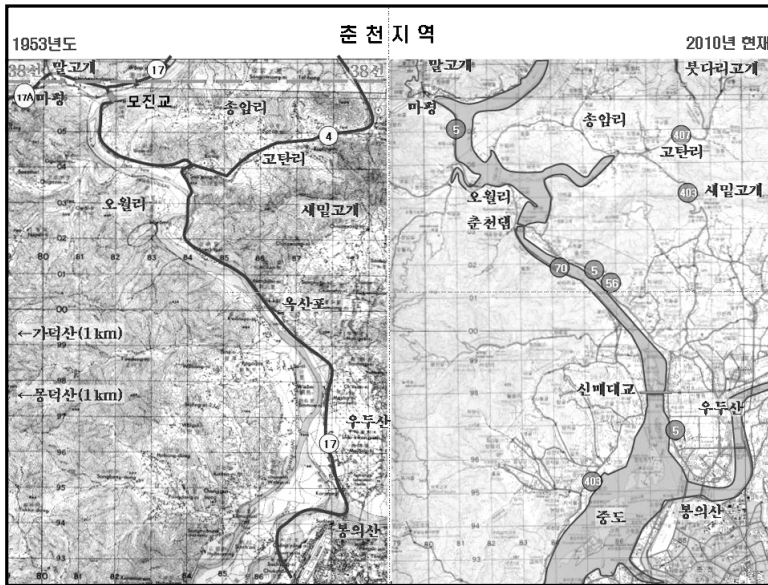
미 9군단의 작전지역은 좌로는 마석우리, 우로 조양리(홍천 서북쪽 6km)를 시작으로 북으로는 백운산, 사창리, 화천 일대까지 횡으로 약 47km, 종으로 약 43km이다. 대부분의 한국지형과 마찬가지로 험준한 산악과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고지(약 800m 이상)로는 청계산(CS5699; 849m), 화악산(CT6805; 1468m), 매봉(CT7106; 1,436m), 수덕산(CS6997; 794m), 가덕산(CT7800; 858m), 북배산(CS7898; 867m), 연엽산(CS9784; 850m), 대룡산(CS9889; 899m), 부용산(CT9705; 882m), 병풍산(CT9615; 797m) 등이 있다.

지역 내 주요하천은 북한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고, 소양강과 홍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하천의 수폭은 60~280m이고, 수심은 1~5.2m(평균 2m)로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도섭이 제한되었다. 주요도로는 가평-춘천-양구로 이어지는 46번 도로(구 17번 도로)가 횡으로 발

23)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3), pp. 885-886.

달해 있고, 홍천-춘천-화천을 잇는 5번 도로(구 29번 도로)가 종으로 뻗어 있다.<sup>24)</sup> 46번 도로는 가평에서 75번 도로, 391번 도로로 나뉘어, 마평(춘천호 부근)에서 5번 도로와 합류하는데 그 당시 도로명은 17A번 도로이다. 당시 도로는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대부분 단차 통행만이 가능하였다. 도로 주변에 소규모의 논과 밭이 산재해 있으며 주요 도시는 가평, 춘천, 화천이 있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가평과 춘천 사이의 중앙부근의 산세는 남으로부터 계관산, 북배산, 가덕산, 몽덕산으로 이어지는 종격실 능선이 발달해 있다.

〈요도 3〉 1953년 지형과 현재 지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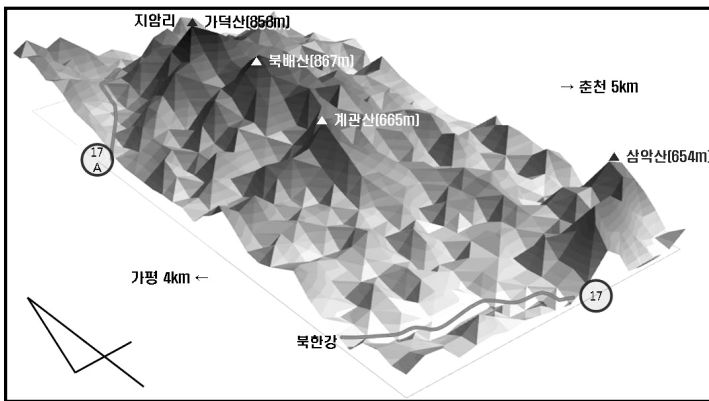
\* 도로망이 발달되고 춘천댐으로 인한 하천(음영)의 크기가 달라짐

24) 현재는 춘천을 중심으로 46번 도로가 횡으로, 5번 도로가 종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당시 17번 도로는 가평-춘천-화천으로 즉, 가평에서 춘천까지는 횡적도로이지만 춘천에서 북쪽으로 뻗어 지금의 5번 도로와 동일하다. 반면, 당시 29번 도로는 홍천에서 춘천까지는 종적도로지만 춘천에서 우측으로 양구까지 이어진다.

2) 작전적 지형 평가

작전지역을 평가해보면 종격실로 이어진 800고지들이 산재해 있고 북한강과 화천저수지 등이 하천이 있어서 대부대 기동에 많은 제한 요소가 되었다. 지역 내 울창한 산림은 도보부대의 기동에 제한을 주었지만 반면 적의 관측이나 항공정찰로부터 엄폐 및 은폐가 용이하였다. 지암리 일대 지형분석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평과 춘천, 지암리 일대의 종격실로 이어지는 높은 고지군과 상대적으로 종적 도로가 발달된 지대 내 도로망은 작전의 주도권을 가진 공자에 비교적 유리하였다. 지암리, 마평 일대까지 17번 도로와 17A번 도로가 종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기계화부대의 기동에 도움이 되었다.

〈요도 4〉 지암리 일대 지형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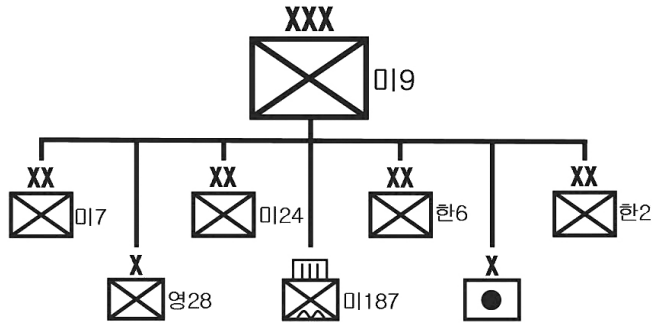
\* 출처: 직접작성(2010. 3월)

(2) 미 제9군단의 작전계획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 명령을 접수한 미 제9군단장(Hoge 소장)은 주어진 제2목표 즉, 878고지(CT9010)-신포리(CT8109)-계성리(CT8215)-화천(CT8717)-대리리(CT9116)-유촌리(CT9412)를 연결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임무분석(分析)을 실시하였다.<sup>25)</sup> 그 결과 춘천-화천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중동부전선에서 김화-철원-평강 지역으로 후퇴하고자 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아울러 화천-사창리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책원지(策原紙)인 철의 삼각지대를 공략하는 전진기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진격과 원활한 협조를 위해 미 제24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sup>26)</sup>

〈도표 1〉 미 제9군단 전투편성



\* 출처: 직접작성(2010.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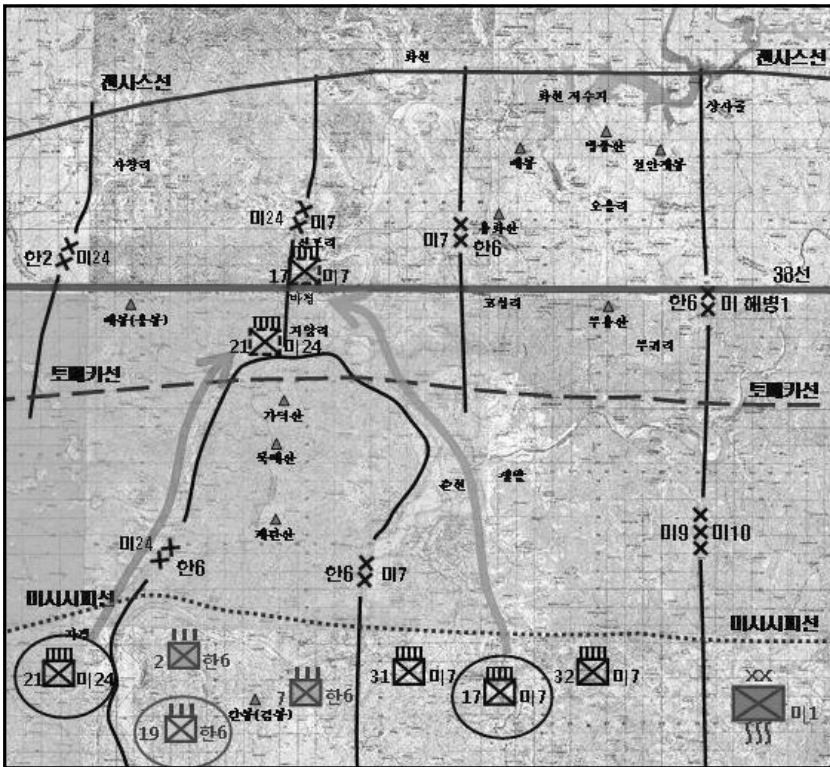
이어 제9군단장은 5월 24일 07:00 홍천-청평 북쪽의 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포착 격파하면서 화천-사창리를 연하는 캔사스(Kansas)선을 점령하도록 하는 요지(작전계획 요도 참조)의 작전명령 제21호(1951. 5. 22. 18:00)를 하달하였다.<sup>27)</sup>

25) 미 제9군단 작전명령 제21호(1951년 5월 21일 18:00).

26)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 472: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658호에 의하면 20일 0500부로 시행되었다.

27)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663호. 5월 21일까지는 용문산 전투를 치르면서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당시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지원이 제한되는 관계로 공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다가 작전명령 21호를 하달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실시하였다. 이 작전명령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69호로 예하부대에 하달되었다.

〈요도 5〉 제9군단의 작전계획



\* 출처: 직접작성(2010. 3월)

## 5. 전투 경과와 결과

### (1) 전투 경과

#### 1) 칸사스선을 향한 반격작전 개시

군단 전방의 중공군은 유엔군의 신속한 기동에 의해 주요 퇴로가 차단되고 포병 및 항공화력에 의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북으로 도주

하고 있었다. 화천저수지 남쪽의 제10군단 구역 내에서 대규모의 적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항공관측 결과 적의 후퇴 경로로 춘천-화천 축선으로 판단되었다.<sup>28)</sup>

미 제 9군단은 좌로부터 한 제2사단, 미 제24사단, 한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현 접촉선인 흥천-청평을 연하는 북쪽선에서 24일 07:00를 기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sup>29)</sup>

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전투지경선 변경에 따라 전선 배치를 조정하고 가용한 기동로와 화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제1단계는 가평을 탈환하고 수덕산(794고지)-검봉산(900고지)을 연하는 선을 점령하여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38°선을 넘어 일거에 캔사스선으로 진격을 하는 것이다.<sup>30)</sup> 사단의 예하 연대전투단(Regement Combar Team: 미군 사단의 연대는 제한적인 독립 작전이 가능한 전투단을 형성하여 운용하였기에 RCT로 통상 불렀음. 편의상 미군 RCT를 이하 연대로 호칭)은 24일 07: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사단의 보전(步戰) 특임부대(特任部隊) 'PLUMLEY'<sup>31)</sup>는 23일 07:00에 출발하여 별다른 적의 저항없이 18:00에 가평(CS692874)을 점령하였고, 24일 새벽 공격을 재개하여 오후에는 목동리(CS725935)까지 진출한 후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적의 엄호부대를 격파하고 가평 외곽반경 3km의 지역인 보납산-하마장-경반리 일원까지 공격한 후 17:00에는 'PLUMLEY' 특임부대가 선점하고 있는 가평을 점령하였다.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제21연대를 후속하다가 보

28)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1호.

2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p. 339-340.

30)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342-343.

31)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64호에 의하면 PLUMLEY TF는 제6전차대대 1개 중대, 제8유격중대, 제24사단 정찰중대, 제52방공소대로 편성되었고 미 제21연대 1개 대대와 함께 임무수행을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료에는 TF BRYAN(사단장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군단 지휘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름을 수정하였다.

납산-하마장-경반리를 연하는 선에서 제21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이곡리-옥너봉(505고지)을 연하는 선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좌측의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는 불기산(601고지)-청우산(619고지) 간 진지를 07:00에 출발하여 태금산(청평 북쪽 9km)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미 제7사단은 제31연대를 좌, 제32연대를 우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제17연대는 예비로 하여 조양리-광판리를 연하는 선에서 춘천을 향하여 추격을 실시하였다. 제31연대(장, Lloyd R. Moses 대령)는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소규모의 적을 격파하면서 계속 진격하였다.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24일 15:00에 춘천 동쪽 6km의 원창고개까지 진출하였다. 'HAZEL' 특임부대(사단수색중대, 보병 1개 중대, 전차 1개 소대로 편성)는 24일 07:00에 출발하여 춘천 일대에서 공세적인 수색정찰 활동을 실시하여 조우되는 적을 격멸하고 22:00에 복귀하였다.<sup>32)</sup> 이로 인해 중공군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24일 제180사단 정면으로 미군 제7사단 보전 특견대(TF)가 춘천지역에 진입하였다. 미 제24사단은 가평리와 북한강 나루터를 점령하여 제180사단으로 하여금 삼면이 포위된 채 싸우는 불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적군은 아군의 저지를 넘어서 사단의 측후방(側後方)으로 진격하였다.”<sup>33)</sup>

한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24일 07:00를 기하여 군단에서 지정한 중간 목표인 미시시피(Mississippi)선(춘천-가평)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진을 시작하였다.<sup>34)</sup> 사단 작전명령 제161호에 의거 사단은 제7연대를 우, 제2연대를 좌, 제19연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들을 소탕하면서 10-11km를 진격하여 미시시피선까지 진출한 후 북한강 도하 준비를 병행하였다.

32)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67호.

33) 杜平, 『在志願軍總部: 인민지원군 총사령부에서』(해방군출판사, 1989), pp. 247-253; 楊鳳安, 王天成 공저, 『北緯38度線-彭德懷與朝鮮戰爭』(해방군출판사, 1999), pp. 355-359.

3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 257.

2) 지대 내 포위망 구축을 위한 작전적 기동

중공군은 춘천-화천 축선을 이용하여 계속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공군 관측에 의하면 적군 10,000여 명이 수덕산 북방, 북배산-지암리 일대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35)</sup> 아울러 인접 미 제10군단 전방 화천호 남쪽 일대에서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병력이 항공정찰에 의해 보고되었다.

5월 25일, 미 제9군단은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토페카(Topeka)선(춘천-수덕산)을 점령키 위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먼저 포위부대인 미 제24사단과 제7사단은 각각 1개 연대를 빠른 속도로 지암리(CT7804)-인람리(CT8204) 일대로 진격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sup>36)</sup> 중앙의 한국군 제6사단은 압박부대로서 공격을 재개하여 계관산-북배산-가덕산을 차례로 점령한 다음, 정면에서 이를 압박하도록 하였다.

미 제24사단은 25일 가평 북쪽으로의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21연대는 06:00에 출발하여 21:30에는 지암리 1km 못미처 있는 윗버둥(CT760044) 일대까지 진출하였다.<sup>37)</sup> 사단 수색중대는 측대봉(1,125; CT7204) 일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제19연대는 06:00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의 별다른 저항없이 중간말(CT7102) 일대를 점령하였다.<sup>38)</sup>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가 25일 오후에 가평에서 지암리에 이르는 도로를 부분적으로 점령함에 따라 지대 내의 중공군은 사창리로 가는 퇴로가 완전 차단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sup>39)</sup>

미 제7사단의 'HAZEL' 특임부대는 08:00에 춘천(CS8894)을 점령하고 중공군 1개 대대 규모를 추격하여 포병과 항공화력 지원하에 100명을 사살하였다. 제17연대는 적의 저항없이 북쪽으로 15마일을 진격하여 16:55에 새

35)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1호.

36) IX Corps, 위의 책, 정보보고 제241호.

37)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69호.

38)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69호.

39)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 pp. 239-240. 제180사단장은 사단이 북한강을 건너 북배산과 가덕산 셋길로 접어들면서 탱크를 포함한 미군 대병력이 산속 비탈길을 따라 행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포위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사단장은 곧바로 무전기도 끄고 암호문을 모두 소각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밀고개(CT890035), 18:25경에 다리골(CT833048) 일대까지 진격하였다.<sup>40)</sup> 제32연대는 06:00에 공격을 재개하여 16:00에 월곡리(CS9598: 춘천 동북쪽 7km) 일대를 점령하고 전면에 가로놓인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였다.

한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를 좌로 제7연대를 우로하여 통제선 토폐카를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2연대는 15:00에 가평 동쪽 3km 지점에서 CS7390-CS7688 부근으로 북한강을 도하한 후 공격을 계속하였다.<sup>41)</sup> 계관산 서측을 따라 진격하여 422고지에서 중대 규모의 적을 섬멸하였다. 제7연대는 07:00부터 북한강을 도하한 후 308고지를 경유하여 계관산의 동측으로 진격하였다. 제19연대는 북배산 후방으로 약진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제1대대는 중앙에서 계관산 일대(CS775937)까지 진격하였다. 제2대대는 좌로, 3대대는 우측으로 우회기동을 실시하여 북배산(867고지) 1km 남단(CS778969)까지 진출하였다. 제6사단은 25일 많은 전과를 올렸다.<sup>42)</sup>

이때 적은 북한강을 건너 북으로 후퇴 중인 중공군 제63군과 미 제10군단 정면에서 후퇴 중인 제60군의 패잔병이 가평 동북쪽 19km의 지암리를 중심으로 수용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sup>43)</sup> 그 잔류부대는 지암리 남쪽 7km에 있는 북배산 부근의 개설 진지에서 지연전을 전개함으로써 피아 간에 접전을 야기하게 되었다.

40)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69호.

41)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69호. 한국군 제2연대의 북한강 도하시간이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 3권(p. 480), 5월 26일 보고서에는 18:00로, 기존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p. 259)에는 07:00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재정리하였다.

42) 육군본부, '가평 지구 전투경과'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육군본부, 1951), pp. 926-928. 제6사단 전투상보에 의하면 '사단은 25일 약 7,000명을 사살하고 약 2,500명을 생포하였다. 여기에서 탈출한 패잔병 약 2,000명은 좌측 부대인 미 제24사단에 의해 생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6사단 일일작전보고서(5월 27일)에는 6,106명 사살, 1,029명 생포로,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5월 27일)에는 6,550명 사살, 668명 생포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4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 337.

### 3) 지압리 포위망 구축 및 적 격멸

26일 오전, 미 제9군단은 토페카(Topeka)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군단장은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가 말고개를 점령하고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가 신포리 일대를 점령함에 따라 일단 적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sup>44)</sup> 군단은 지대 내에 포위된 적을 격멸하고 아울러 우측 제10군단의 캔사스(Kansas)선 진출을 고려하여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즉, 군단 중앙에서 작전 중인 한국군 제6사단(-)을 춘천 동북방으로 진출시켜 화천 저수지(지금의 파로호) 이남의 적을 격멸하도록 하고, 미 제7사단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화천을 가능한 조기에 점령하도록 하였다. 제9군단은 26일 12:15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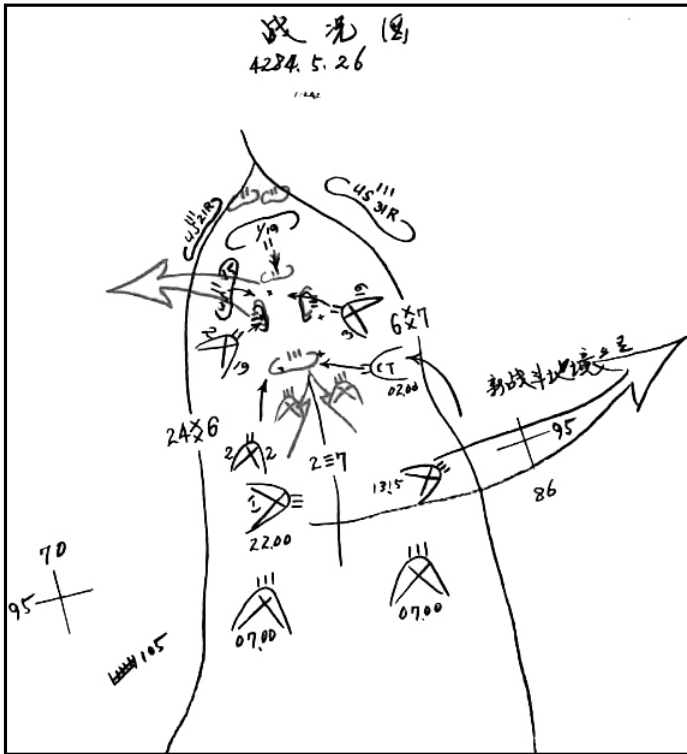
- ① 군단은 일부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적을 격파하고 켄터키(Kentucky)선을 점령한다.<sup>45)</sup>
- ② 미 제24사단은 계속 진격하여 사창리 일대를 점령하라.
- ③ 한 제6사단(-1)은 즉각 군단 우측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라. 1개 연대가 도착하는 즉시 공격임무를 수행하라. 미 제7사단과의 새로운 전투지경선은 임무개시와 함께 유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휘관 간 협조하라.
- ④ 미 제7사단은 Kentucky선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라. 한 제6사단과의 새로운 전투지경선은 한국군 제6사단의 임무개시와 함께 유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휘관 간 협조하라.(이하 생략)<sup>46)</sup>

44)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2호.

45) 켄터키선은 토마제-회음동-신포리-용화산-병풍산을 연결하는 선으로 토페카선과 캔사스선 중간 정도, 38도선 북방 3-4km에 위치하였다.

46)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1호. 기존 자료에는 작전명령의 하달 시간이 없는데 군단 5월 26일 작전보고서에 의거 부대 및 유효시간, 변경된 전투지경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도 6〉 지암리 포위섬멸 상황



\* 출처: 제6사단 전투상보

미 제24사단의 제21연대는 선두부대가 26일 08:00에 지암리에서 약한 저항을 물리치고 진격을 하여 고수령(지금의 고시락고개)에 이어 19:00에 원평리(CT785067)와 말고개(CT796073)를 연하는 도로 일대를 점령하여 적의 서북방 퇴로를 완전 차단하였다. 제19연대는 6km를 진격하여 20:00에는 천연적 요지인 매봉(1,436고지; CT7105) 북방 1km까지 확보하고 화악산을 점령하여 사창리 일대를 감제할 수 있게 되었다.<sup>47)</sup> 제5연대는 소법리(CS7296) 일대에 중심 진지를 편성하여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 한국군

47)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71호.

제19연대(+)와 함께 지대 내 잔적 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연대 제2대대는 중공군과 교전을 벌여 27일 1,472명을 생포하였다.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20:00에 건넌들(CT825110)-신포리(CT8010)-462고지(CT8209)를 점령함으로써 말고개까지 진출해 있던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연결이 되었다.<sup>48)</sup> 이로써 지암리와 마평 이남의 중공군은 북쪽으로 가는 퇴로가 완전 차단되고 아군에 의해 춘천-화천도로와 가평-지암리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전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포위망에 완전 포위되었다.<sup>49)</sup>

양익으로 포위망을 압축한 미 제9군단은 전차부대로 하여금 중흥무진 기동과 화력으로 진지를 충격(衝擊)케 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은 패닉현상이 발생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주하기에 바빴다.<sup>50)</sup> 26일과 27일 양일간 미 제24사단은 가덕산 일대 포위망에서 중공군 1,800명을 생포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중공군 2,000여 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sup>51)</sup>

한국군 제6사단은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몽덕산(635고지: CT7701)과 지암리를 직접 공략하기 위하여 3개 연대를 병진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14:30에 사단(-)을 춘천 북방으로 이동하라는 군단 명령을 수령하였다.<sup>52)</sup>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19연대(+)로 하여금 몽덕산을 목표로 진격을 하도

48)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71호. 이 부분은 지암리 포위섬멸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양개 연대가 연결한 시간을 26일 20:00로 판단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에는 '25일 18:30에 미 제24사단의 21연대가 신속하게 원평리(CT7905: 화천 서남쪽 13km) 부근에 진출하여 춘천에서 진격해 온 제7사단 보전특임부대(TF)와 전선을 연결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육군대학 전쟁사 교육 자료와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중)』에는 '26일 오전에 지암리에서 합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9) 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한 『抗美援朝戰爭의經驗總結: 戰爭簡史』 p. 51에 '5월 26일 미 제24사단이 간촌을, 미 제7사단이 오구남리(梧口南里), 마평리(馬坪里)를 점령한 후 사창리(史倉里), 화천 방향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국군 제6사단은 계관산을 점령한 후 계속 북진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 348. 미 제9군단 정보보고서나 포로 진술을 종합해볼 때 실제 교전에 의한 피해보다는 아군의 화력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1)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3호(5월 27일).

5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p. 260-261.

록 조치하였다. 사단의 임무가 조정되면서 제19연대는 제2연대 제2대대와 사단 교육대를 배속받았고, 미 제 24사단의 포병화력이 지원되고 미 제5연대의 1개 대대가 추가로 증원되었다.<sup>53)</sup>

병력을 증원받은 제19연대장은 공격대형을 조정하여 공격하였다. 26일 21:10경 제3대대는 가덕산 동쪽인 삼선 일대에서 적 1개 대대를 포위하였고, 2대대는 가덕산(CT7800) 서쪽을 점령하였다. 제1대대는 북배산 자락에서 우회기동을 하여 15:00경에 지암리, 삼거리(CT781042)에 도달하였다. 제1대대장은 547고지(CT798054)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으로 결사적인 저항을 하는 적과 직면하자 제1중대를 우측으로 우회공격을 실시하게 하여 밤늦게 고지를 점령을 하였다.<sup>54)</sup> 27일 제19연대(+)는 지암리, 머구넘이, 가덕산(CT7800) 우측 일대에서 교전하여 포위망을 벗어나려는 적을 섬멸하였다. 한국군 제6사단은 26일과 27일 양일 가덕산 일대에서 생포 700여 명, 사상 7,000여 명의 전과를 올렸다.<sup>55)</sup>

지암리 포위망 안에 갇힌 중공군 제180사단은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였고<sup>56)</sup> 중공군 지원군 사령부에서도 구출작전을 벌였으나 포위망 내에서 대부분 주력이 섬멸되었다. 중공군 전사 자료에 나타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4일 미 제24사단의 특견대에 의해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24일 저녁 제60군은 제179사단을 대룡산에서 마적산, 수리봉으로 이동시켜 북으로 밀려오는 적을 저지하고 제180사단은 북한강 이북으로 후퇴하도록 명령하였다. (중략) 제180사단은 어쩔 수 없이 북배산, 몽덕산, 가덕산 지역으로 후퇴하였다. 26일 미 제24사단은 셋말을 점령하고 미 제7사단도 아 제179사단 제536

53)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2호. 이러한 전과는 전사 자료마다 약간씩 상이하여 전과는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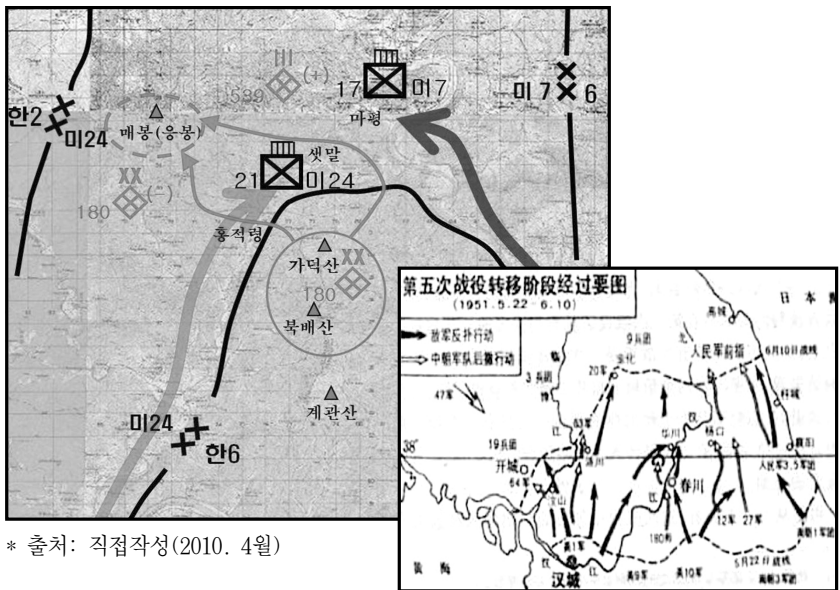
54) 이록영, 「사창리 및 용문산 지구 전투」, 『전사』 67집, (서울: 육군본부, 1967), pp. 71-73. 당시 필자는 제19연대 1대대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사창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에 참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한국전쟁사 6권이나 육대 전사자료에는 547고지 전투가 누락되어 있다. 제6사단 전투상보에는 일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5)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3호.

5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제6사단』 제53권(p. 905)에 의하면 당시 중공군 제180사단의 전투력은 약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대의 방어진역을 돌파하여 오구남리, 마평리를 점령하여 제180사단은 고립되었다. 적들은 제180사단의 후방으로 계속 진격하고 한국군 제6사단은 계관산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북진하였다. (중략) 26일 18시, 퇴로가 차단된 제180사단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망을 탈출하고자 하였다. 사단본부, 제538연대, 제540연대는 가덕산, 몽덕산을 거쳐 27일 매봉(鷹峰)에 도착하였으나 도중에 적의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으로 부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539연대는 납실리, 셋말(間村), 고수령(高秀嶺)<sup>57)</sup>을 경유하여 매봉에 있는 본대와 겨우 합류할 수 있었다. 당시 사단은 지휘체계가 엉망이었고 부대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위망을 탈출한 인원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sup>58)</sup>(『抗美援朝戰爭史』 중에서)

〈요도 7〉 중공군 제180사단 탈출로



\* 출처: 직접작성(2010. 4월)

\* 출처: 『第一次較量』(徐焰)

57) 중공군 제60군의 『抗美援朝戰爭史』 p. 8에는 홍적령(紅蹟嶺)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고수령(현재 지명은 고시락고개)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58) 제60군, 『抗美援朝戰爭史』(중공군 제60군, 1958), pp. 7-9.

“1951년 5월 26일 저녁, 제180사단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망을 뚫기로 결정하였다. 사단본대와 제538연대, 제540연대는 북서쪽 길로, 제539연대는 북쪽 길을 향해 탈출하여 다음날 오전 9시 매봉 이남에서 만나기를 약속하였다. 제538연대의 참모장 후징의(胡景義)는 2, 3대대를 이끌고 미군의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다. 도로 위에서 2개 대대의 중국병사들은 죽을 각오로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 전차를 향해 공격해갔다. 4중대의 병사들은 탱크와 싸우던 중 모두 사망하였다. 5중대는 연달아 따라붙어 전투를 벌였다. 결국 마지막에는 10여 명만이 남았다. 제3대대와 미군 병사들은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육박전을 벌였다. 제538연대의 2개 대대는 많은 사상자를 대가로 하나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59)</sup>(『中國人民志願軍 征戰紀實』중에서)

“제180사단은 굶으며 후퇴한 3일 동안 낮에 작전을 펼칠 자신이 없어 야간에만 행동하였다. 어떤 때는 밤을 꼬박 걸어도 5km밖에 이동을 못할 때도 있었고 이동 중 낙오자와 도망자도 매우 많았다. 5월 26일 야간, 제180사단은 화천 서남의 지암리로 후퇴하였는데 퇴로가 이미 끊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단 당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결국 분산되어 포위망을 뚫자는 결론을 내렸다. (중략) 5월 27일 낮, 매봉에 도착한 제180사단의 일부 병력은 다시 미 제24사단이 공격해오자 사단의 간부들과 경험이 비교적 많은 핵심인사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소수의 인원들만이 끝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다수는 저항할 의지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 제180사단 전 사단병력 1만 1천 명 중 7,000여 명을 넘게 잃었고 그 중 5,0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sup>60)</sup>(『第一次較量: 抗美援朝戰爭的歷史回顧與反思』중에서)

당시 중국군 제180사단은 한미연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일부는 27일 오전에 매봉 부근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거기에서 다시 미 제24사단의 공격을 받고 공중분해되었다. 결국 인접부대와 불과 20km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모두 격멸되었다.<sup>61)</sup>

59) 王樹增, 『中國人民志願軍 征戰紀實』(해방군문예출판사 2001), pp. 763-765.

60) 徐焰, 『第一次較量: 抗美援朝戰爭的歷史回顧與反思』(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8), p. 118.

61) 徐焰, 위의 책, pp. 118-119.

## 4) 38선 돌파 및 화천 점령을 위한 진격

27일에도 미 제9군단은 캔사스선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공격하였다. 38°선을 고수하던 중공군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 제7사단이 화천에 육박하고 미 제24사단이 매봉(CT7106) 일대 요지를 점령하여 사창리 지역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일부 부대로서 계속 지연전을 펴면서 주력은 북상 퇴각하였다. 중공군은 안전하게 본대를 북쪽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제대별로 엄호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sup>62)</sup>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중공군 사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월 27일 08:00경, 미 제7사단 선발대는 전차 60여 대의 엄호하에 화천으로 진격하였다. 10:00 아 제58사단은 도평촌을 우회하여 화천 이북 일선에 도착한 후 화천 일대 정찰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즉각 제172연대 9중대에 명령하여 유목정, 토고미를 통제하고 제173연대 8중대는 적보다 먼저 화천 북쪽의 313고지를 선점하도록 하였다. 12:00경 제58사단은 명령을 받고 방어를 전개하여 과감한 행동으로 적보다 먼저 계성리, 대가마리, 성산(현재 성채산: CT850180), 이화동, 372고지, 전장동, 대리리 지역을 점령하였다.”<sup>63)</sup>

미 제24사단은 우측 제7사단의 화천 탈환작전에 호응하여 주 병력은 진격을 계속하고 일부병력은 현진지에서 다음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제21연대는 북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광산골(CT765090)과 신포리 일대까지 점령하고 신포리-사창리 간 도로를 확보하였다. 제19연대는 매봉과 화악산 전방까지 진출하여 사창리 지역 정찰을 하면서 진격할 준비를 하였다.

북한강 일대 교두보를 확보한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화천-춘천 간 축선을 따라 계속 화천방향으로 진격하였다. 27일 14:00에 장거리(CT854174)

62) 대개 규모는 상이하나 대대의 경우 1개 분대를 선정하여 운용하였다. 본대가 사격하다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엄호부대는 그때부터 과감한 사격을 실시하여 본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유엔군의 추격을 방지하였다.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4호 부록1.

63)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원제: 抗美援朝戰爭的經驗總結』(육군본부군사연구소, 2009), pp. 369-370.

일대를 점령하고, 곧바로 전차소대가 화천(CT870175)에 진입하였다. 제31연대는 제17연대를 후속하면서 건넌들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한편 군단으로부터 갑작스런 명령을 받고 이동을 실시한 한국군 제6사단(-)은 27일 춘천 동북방의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설한 후 제2연대와 제7연대에 매봉과 화천발전소를 탈취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연대는 매봉과 화천발전소를 탈취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27일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22:00에 목표인 용화산(CT9010; 화천발전소 남쪽 8km)을 확보하였다.<sup>64)</sup> 제7연대는 춘천 동북쪽 16km의 부용산(CT975060) 일대로 약진하였다.<sup>65)</sup>

#### 5) 화천 탈환 및 화천(구만리)발전소 점령

미 제9군단은 28일 캔사스선(원평-하술대-음지말)을 향해 계속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미 제24사단 작전지역인 사창리 일대와 제7사단 작전지역인 화천 일대에서는 완강하게 저항하였다.<sup>66)</sup>

미 제24사단 주력은 28일 우측 제7사단의 화천 탈환작전에 호응하여 캔사스선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19연대는 사창리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 중인 연대급의 중공군과 15:00부터 교전하여 우군의 항공화력과 포병지원으로 21:30에 격멸하였다. 제21연대는 06:00에 출발하여 북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19:30에 812고지(CT773145)와 632고지(CT795145)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춘천과 사창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완전히 아군의 통제하에 들어왔다.<sup>67)</sup>

미 제7사단은 화천을 조기 탈환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제31연대는 28일 12:50에 화천 좌측의 성채산(CT850180)을 점령하였다. 제17연대 제3대대는 372고지(CT880175)를, 제1대대는 후덕산(CT9019)을 점령

6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 (서울: 국방부, 1973), p. 263.  
65)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3호, 『청성투혼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6)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4호(5월 28일).  
67)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5호.

하였다. 제2대대가 20:00 화천 북동쪽 무명고지(CT869189)를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화천을 확보하였다. 한편 전차특임부대는 파포리(CT833239) 일대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여 적 100여 명을 사살하고 18:00에 복귀하였다.<sup>68)</sup>

한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는 28일 가덕산-오월리 일대에서 잔적 소탕임무를 계속하였다. 전날 용화산까지 진출해 있던 제2연대는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여 성불령(799고지) 일대에서 저항 중인 2개 중대의 적을 격멸하고 17:00경 매봉(CT920145)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후 제3대대(10중대)는 계속 공격을 실시하였고 화천발전소 입구에서는 돌격사격을 하면서 발전소 경내로 돌진하였다.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고 주위에 숨어 있던 포로 203명을 획득하고 제2연대가 화천발전소 탈환전을 성공리에 종결하였다.<sup>69)</sup> 우측 제7연대는 별다른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공격을 계속하여 후평(CT9710)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한국군 제6사단 제2연대는 29일 06:00에 화천댐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재개하여 18:30에 화천댐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감제고지(CT9119)를 1개 중대로 점령함으로써 구만리발전소와 화천댐이 한국군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왔다.<sup>70)</sup>

## (2) 전투 결과

미 제9군단은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 간 실시된 반격작전에서 작전 목표인 캔사스선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술적으로 대단한 전과를 거두었다.

68)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75호.

6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재정리하였다. 미 제9군단작전보고서 제675호에는 '제2연대 3대대가 28일 17:00에 매봉(CT920145)까지 진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전사편찬위원회, 구만리(화천)발전소 점령 시기를 『한국전쟁사: 제한전선의 격동기』 6권(p. 348)에는 28일 17:00로, 청성투혼사(pp. 359-360)에는 28일 새벽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성투혼사에 의하면 화천발전소 탈환의 공로로 제3대대장은 을지무공훈장을, 제10중대 전원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70)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77호, 『보병 제6사단 지휘보고서』(p. 928)에는 '제2연대는 29일 16:10에 화천발전소를 확보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화천댐으로 이해가 된다.

(작전결과 요약 참조) 지암리 일대에서의 중공군 포위작전을 통해 중공군 제180사단을 포함하여 포위된 중공군을 격멸하였고, 사창리와 화천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미처 도주하지 못한 중공군 패잔병을 대부분 섬멸하였다.

〈도표 2〉 작전결과 요약

(단위 : 명)

구 분	사 살			포 로		
	미 24사단	한 6사단	미 7사단	미 24사단	한 6사단	미 7사단
51. 5. 24	443	118	480	37	17	9
51. 5. 25	550	331	471	15	38	37
51. 5. 26	285	848	956	137	148	78
51. 5. 27	753	6,550	1,570	1,806	668	107
51. 5. 28	573	3,499	1,594	1,307	1,251	100
51. 5. 29	262	829	1,573	16	70	130
51. 5. 30	138	1,208	338	1,455	203	73

\* 출처: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

특히, 한국군 제6사단은 용문산지역에서 중공군 제63군을 완전 소진시켜 제9군단의 공세이전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암리 포위전에서는 제180사단의 주력을 격멸하는 등 5월 27일 하루에만 사살 6,550명, 포로 668명의 전과를 올렸다. 또한 작전지역을 변경한 후 화천발전소와 화천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제5차 2단계 공세 이후 유엔군의 제3차 공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공군은 정책 및 전략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본토의 마오쩌둥은 중공군지원사령부에 그들의 작전방침을 진격위주의 운동전에서 적극 방어하는 데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였고<sup>71)</sup> 당분간 대규모 공세를 하지

71) 정부기록보유소, 『한국전쟁과 중국 II』. (서울: 행자부, 2002), pp. 127-128. 1951년 6월 2일 마오쩌둥은 '투지를 높여서 적군의 진공을 정지시키고 정국을 안정시키자'라는 전문을 팡더화이에게 하달하였다.

않도록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다.<sup>72)</sup>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소련 대표부를 통한 유엔의 휴전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전협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sup>73)</sup> 리지웨이 사령관이 정전협상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자 중국 측은 팡더화이와 김일성의 연명으로 7월 4일 리지웨이에게 정전협상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보냈다.<sup>74)</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휴전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 6. 작전적 분석

### (1) 작전적 분석의 틀

작전술이란 기존의 전략의 영역과 전술의 영역들 중의 일부분을 용병체계의 한 영역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작전술 교범에는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 및 참모가 군사전략지시에서 제시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역 및 대규모작전을 계획하고, 준비 및 실시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략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sup>75)</sup> 작전적 책임을 지는 지휘관은 국가전략의 최종상태를 규정하는 조건을 창출하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하여 작전술을 사용한다.<sup>76)</sup>

72) 정부기록보유소, 위의 책, pp. 129-130. 1951년 6월 11일 마오쩌둥은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는 대규모의 반격작전을 진행하지 말 것'이란 제목의 전문을 팡더화이에게 보냈다.

73) 정부기록보유소, 위의 책, pp. 131-132. 마오쩌둥은 '평화회담 준비에 관한 문제'란 제목으로 7월 2일 팡더화이, 김일성, 가오강 동지에게 긴급 전문을 보냈다.

74) 정부기록보유소, 위의 책, p. 135. "당신이 7월 3일 우리에게 보낸 회답을 받아 보았습니다. (중략)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우리는 쌍방이 연락관이 만나는 시간을 7월 8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75) 육군교육사령부, 『작전술』(대전: 육군교육사, 2007), pp. 1-2~1-4에는 '작전술이란 지휘관 및 참모가 자신들의 기술,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전역 및 대규모작전을 구상하고 부대를 조직 및 운용하기 위해 창의적인 지략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작전술은 전쟁의 수준별 목표, 수단, 방법을 통합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76) US army,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8), p. 6-5.

6·25전쟁 당시 비록 작전술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유엔군과 중공군이 작전술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여 전투에 임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방부대나 학교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사연구의 취지에 맞게 작전적 분석의 틀(reference of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작전 경과를 요약한 후에 작전지도,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 기동과 템포(tempo), 통합화력운용(integrated fires), 작전지속능력 등의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 (2) 작전 구상 및 작전 지도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가 시작되자 우선적으로 방어를 실시하고 적의 취약점인 전투지속능력을 고려하여 공세이전 여건을 조성 후 반격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5월 16일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초전에는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다가 5일 정도 지난 5월 20일 중공군의 공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자 운두령 일대에서 작전적 절단을 시도하여 주도권을 잡은 뒤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감행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을 지대 내에서 격멸하고 그들의 전투의지를 꺾기 위해 공세를 계획하면서 “중공군의 취약점과 결정적 지점은 어디인가? 어디로 주공(主攻)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부대는 어떻게 편성, 운용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캔사스선 이남에서 중공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하였다.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공중 및 해상 우세권을 활용하여 중심상에서부터 적 병참선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미 제8군은 군단별로 작전선<sup>77)</sup>을 운용하였다. 제10군단 지역에서는 이미 69-70km의 돌파구가 형성

77) US army, 위의 책, pp. 6-12에 ‘작전선(Line of Operation)은 적과 관련한 시간과 공간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부대를 작전기지와 목표를 연결하는 선’으로 기술되어 있다.

된 현리지역의 위협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세 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로 있던 미 제3사단을 운용하여 운두령 일대에서 작전적 절단을 시도하여 중공군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제9군단 지역에는 퇴각하는 적을 조기에 포착 섬멸하기 위해 지암리 일대로 지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전지도지침에 의거 제9군단장은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sup>78)</sup>을 지암리 일대로 선정하고 이 지점을 조기에 포위섬멸하기 위해 공중우세권이 확보된 이점을 이용하여 기동력이 뛰어난 보전특수임무부대(TF)를 수개 편성하여 적진 깊숙이 전진시키고 공세적인 위력 수색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좌측의 미 제24사단의 1개 연대와 우측 미 제7사단의 좌측연대로 하여금 도로를 따라 신속히 진격하여 지암리와 마평 일대를 조기에 점령하도록 하였다. 결국 지암리 일대에서 중공군 제180사단을 포함한 중공군 제60군과 제63군, 제20군, 15군, 12군의 패잔병을 포위할 수 있었다.<sup>79)</sup>

제9군단장은 지암리 일대에 포위망이 형성되자마자 조기에 화천 점령을 위하여 과감하게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6사단의 작전지역을 변경하였다. 또한 공세 초기에 진격 속도가 늦어지자 각 사단장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진격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중대급 이하의 적과 조우하면 교전을 피하고 우회 전진(bypass)할 것을 지시하였다.<sup>80)</sup>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천 점령 및 캔사스션으로 진격이 지연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넘어온 중공군의 패잔병을 완전 포위하기에는 공격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sup>81)</sup>

78) US army,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8), pp. 6-11에 '결정적 지점은 지휘관이 적에 대해 현저한 이점을 얻거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지리적 장소, 주요 사태, 핵심요소 및 기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79)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 pp. 239-241.

80)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 472. 한글 번역판 『밀물과 썰물』 (p. 519)에는 '중대급 이상 적과 조우시 우회 전진하라'고 오역이 되어 있어 바로잡는다.

81) Billy Mossman, 위의 책, p. 480.

반면, 팡더화이(彭德懷) 지원군총사령관은 유엔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한 철수 명령을 5월 22일 하달하였고, 아울러 주력의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호부대를 운용하고 여건이 허락할 때 소규모 반격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원사령부 특별지시를 하달하는 세밀함을 보였다.

“각 병단은 1개 사단에서 1개 군단에 이르는 병력을 남겨 기동방어(機動防禦) 작전을 구사하고 수시로 적을 저지하고 섬멸하여 각 병단의 본대가 38선 이북지역에서 휴식 및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중략) 제19병단은 위천리, 수천 이북으로 이동하여 휴식 및 정비하고 한 개 군단을 남겨 중심배비(縱深配備)하라.”<sup>82)</sup>

그러나 팡더화이(彭德懷)는 철수할 때 제3병단사령부에게 “그 자리에서 멈춰 부상 병력을 후송하는 데 엄호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당시 긴박한 예하부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엄호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케 하였다. 제180사단은 전보를 받고 북한강 이남에서 정지하였다가 차후에 복상하였으나 결국 포위되어 전멸하였다.<sup>83)</sup>

### (3)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

작전한계점은 부대가 작전의 현 작전을 지속할 능력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상태 및 시기를 말하며, 상대적인 전투력상의 결정적인 변화를 대표한다.<sup>84)</sup> 이는 작전부대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및 시기로서 자원의 부족, 수송능력 제한, 과도한 전진, 전투력의 손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up>85)</sup>

82) 楊鳳安, 王天成 공저, 『北緯38度線-彭德懷與 朝鮮戰爭』 (해방군출판사, 1999), pp. 355-359.

83)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 pp. 242-243.

84) US army,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8), pp. 6-17; 교육사, 『공격전술』 교육참고 8-3-5, (대전: 교육사, 2009), pp. 1-90.

85)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대전: 육군본부, 2006), p. 499.

당시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작전한계점을 공격작전 간 잘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휘관은 피아의 물리적, 심리적 조건을 평가하여 작전한계점 도달 이전에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중공군 지원군 사령부는 제5차 2단계 공세 간 이를 잘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엔군의 반격을 허용하였다. 결국 38선 이북으로 후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후 중공군은 유엔군에게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반면 중공군 지도부는 공세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만을 연구하였을 뿐 상대의 반격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전투력만 고려하고 상대의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제3병단에 있는 8,000여 명의 부상병 후송임무를 제180사단에게 부여함으로써 적시에 북한강을 도하하지 못하였고 결국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운 유엔군의 신속한 공격에 포위된 채 섬멸되었다.<sup>86)</sup>

#### (4) 기동과 템포(tempo)

효과적인 기동은 적에게 그들이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새로운 문제와 위협에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균형을 와해시킨다.<sup>87)</sup> 통상 작전적 기동을 대규모 부대의 장거리 이동으로 생각하지만 규모만 가지고 작전적 수준의 기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작전적 차원의 유리한 이점을 창출하려는 기본 목적의 달성여부로부터 도출된다. 기동은 전투개시 이전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 전술적 승리를 확대함으로써 전략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가 더 중요하다. 미 제9군단의 초기 작전적 기동은 중공군의 예상을 넘어선 신속한 기동이었다. 24일부터 28일까지 무려 40km를 적진으로 기동하였다.

86) 제60군, 『抗美援朝戰爭史』(중국군제60군, 1958), pp. 7-8.

87) US army,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8), p. A-2.

작전적 템포<sup>88)</sup>에 있어서 유엔군과 중공군의 시각 차이가 컸다. 당시 중공군은 유엔군의 빠른 진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으나 미 제9군단에서 보전 특임부대(TF)를 운용하여 신속하게 진격하자 중공군 지원군사령부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한국전쟁에 대해 그들이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적의 동태를 보아 고도의 기계화장비를 이용, 소위 자성전(磁性戰)을 전개하여 아군과 소모전을 펼쳐 지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군 주력은 북으로 이동하여 휴식 정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의 공격을 저지한다. (중략) 5월 22일부터 중조(中朝)군은 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부대는 심리적 마비(panic)가 오기도 했다. 당시 지원군은 8,000명의 부상자를 아직 운송하지 못했고 이 또한 부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중략) 이번 적의 반격은 견고하고 竄進(병진)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차와 기계화보병으로 조직된 특전대는 다수의 비행기의 엄호하에 도로를 타고 아군을 향해 신속하게 파고들어 다리와 나루터를 점령하였고 후속부대와 합동해 지원군의 후방 철수 부대를 포위했다. (중략) 일부 지휘관은 현대기술 병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화력으로 도로를 봉쇄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다 병력을 산에다 집중시켜 적군이 최전선을 돌파하여 3일 내에 아군 중심 50-80km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sup>89)</sup>

결국 이러한 작전적 템포에 뒤진 중공군 제180사단은 지대 내에서 포위되었고 지원군사령관 팽더화이는 뒤늦게 구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모택동은 팽더화이에게 전문을 보내 제180사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sup>90)</sup> 다급해진 팽더화이는 26일 17시, 제60군과 제15군의 지휘관에게 제180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60군단장 위걸과 정치위원 원자흠은 제

88) 템포(tempo)는 적에 관하여 시간에 대한 군사작전의 상대적인 속도이며 리듬이다. 작전적 템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2중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동부대의 조기투입과 기동단계의 템포를 배가함으로써 실시 템포가 급속히 증가한다. Richard E. Simpkin, *Race to the shift*. (Washington 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 pp. 106-109.

89) 楊鳳安, 王天成 공저, 『北緯38度線-彭德懷與 朝鮮戰爭』(해방군출판사, 1999), pp. 355-359.

90) 정부기록보유소, 『한국전쟁과 중국 II』, (서울: 행자부, 2002), p. 123.

180사단에게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함과 아울러 제179사단 제536연대를 지암리로 보내고 제181사단의 1개 연대를 차출하여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sup>91)</sup> 그러나 제536연대는 도중에 미군의 공격으로 불가하였고, 제181사단은 21:30에 명령을 받았으나 통신망이 두절되어 전령이 명령 전달을 해야 했기에 효과가 없었다. 제15군 군단장 진기위도 27일 21:00에 전령으로 제44사단과 45사단의 휴식 정비를 해제하고 지원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결국 제180사단은 가덕산과 몽덕산 일대에 포위된 채 격멸되었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중공군의 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26일, 제180사단은 화천 서남쪽 지암리 일대에서 적에게 완전 포위되었다. 당일 18:00 사단은 적 포위를 돌파하기 위하여 두 갈래로 나뉘었다. 사단 직할과 538, 540여단이 한 그룹을 편성하여 27일 오전에 포위망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적의 포병에 많은 피해를 입고 일부만 매봉(鷹峰)으로 들어왔다. 제539여단도 27일 09:00에 매봉에서 사단 본대와 모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단에 집결한 인원은 1천 명도 되지 않았고 심한 혼란 상태로 있었다. 중화기와 통신기재는 모두 잃어버리거나 폐기 처분하여 1개의 무전기만 가용했다. (중략) 도중에 적과 조우했지만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돌파해서 복귀한 인원은 겨우 사단장, 부사단장, 참모장, 여단장 등 약 300여 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조선전쟁에서 지원군의 가장 처참한 패배 중 하나였다.”<sup>92)</sup>

### (5) 통합화력운동(integrated fires)

주요작전의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적용되었을 때 이를 작전적 수준의 화력으로 간주한다.<sup>93)</sup> 극동공군사령부(FEAF)는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하에 적지중심 화력지원과 근접항공지원(CAS; close air support)

91) 제60군, 『抗美援朝戰爭史』(중국군제60군, 1958), pp. 7-8.

92) 杜平, 『在志願軍總部』(해방군출판사, 1989), pp. 247-253.

93) 미 야전교범 100-6 『대부대 작전: Large Unit Operations』 pp. 3-14에는 작전적 화력의 운용목적을 돌파구를 형성을 통한 작전적 중심으로의 기동 여건 조성, 전장 고립, 작전적 차원의 주요시설 파괴 등으로 기술한다.

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중심상에서 주요 기동로상의 교량이나 집결지를 공격하여 작전지속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월 말부터 B-29폭격기의 일일 출격횟수를 종전 12회에서 18회로 증가시키고 임무 우선순위도 비행장 폭격작전, 지상군 지원작전, 후방차단작전순으로 조정하였다.<sup>94)</sup> 또한 야간 폭격의 증가, 적군의 야간 차량기동을 방해하기 위한 못 살포작전(Operation Tack), 보급품 차단을 위한 트럭사냥 계획(truck hunting plan) 등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여 지상군을 지원하였다.<sup>95)</sup> 이 같은 적극적인 작전결과 4월에는 적 차량 2,336대를 파괴하고 1,496대를 파손하였다.<sup>96)</sup> 제9군단의 정보·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곳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제9군단 작전에서의 아군의 공중 및 지상 공격으로 적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워낙 커서 중공군 제60, 63, 64군은 전투 가능부대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주간에는 적군의 이동이 포착되었고 아군 공군 및 포병이 야간까지 공격을 하였다. 공군 관측요원에 의하면 1,000여 명의 적군이 사망했고 25대의 화포와 차량 99대가 파괴되었다고 했다. (중략) 퇴로가 차단된 채 기아에 허덕이고 아군의 포병 및 공중공격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가덕산으로 우회하던 대규모 적은 주간에 항복했고 27일 하루에 1,800명에 달하였다.”<sup>97)</sup> (*IX Corps Command Report* 중에서)

“25일 오후에 아군 항공정찰대는 약 10,000-12,000명의 병력과 수많은 차량과 화포로 구성된 중공군 제12군과 제15군(추정)이 긴 대열로 화천을 향해

94) Robert F. Futrell, *The US Air Force in Korea 1959-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SAF, 1983), p. 322.

95) Robert F. Futrell, 위의 책, pp. 325-329. 야간에 운행하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핑크 내기 위한 네발 못(the wild idea of the tetrahedron)까지 개발하여 살포하였으며 다음날 28대의 고장 난 차량을 발견하였다.

96) Robert F. Futrell, 위의 책, pp. 334-335.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간 미극동공군의 활약으로 적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지상전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미 극동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에 항공기 59대가 손실되었다.

97)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1호.

북서쪽으로 도주하고 있을 때 포병과 모든 전투비행단을 동원하여 중공군 대열을 공격하였다.”<sup>98)</sup>(*Ebb and Flow* 중에서)

미 제5공군은 효과적인 근접항공지원(CAS)을 위해 당시 훈련기인 T-6를 공중통제기로 활용<sup>99)</sup>하여 정확한 적정(適情)을 확인하여 제공함으로써 항공폭격의 정확도를 대폭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지상군의 기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참고로 제9군단 작전보고서에 집계된 제9군단의 근접항공지원 현황은 <도표 3>과 같다.

<도표 3> 근접항공지원(CAS) 현황

구분	계	5. 24	5. 25	5. 26	5. 27	5. 28	5. 29	5. 30
소티	253	40	97	·	40	48	28	·
비고	※ 5월 26일과 30일은 악천우로 인해 미 실시							

\* 출처: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

포병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밴플리트 사령관은 작전기간 중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일 포탄 사용량의 5배(소위 밴플리트 탄약량으로 불림)를 사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였다.<sup>100)</sup> 실제로 지암리 일대가 포위된 이후 미 제24사단과 한국군 제6사단의 전과를 분석해보면 작전적 화력의 중

98)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 478.

99) 비행 시 모기소리가 난다 하여 모스키토(Mosquito)라 불리는 T-6은 공군 조종사 훈련기였으나 비행속도가 빨라 생존성이 있었기에 AN/ARC-3 무전기를 장착하여 공중통제업무(air control)를 수행하며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운용되었다. 대전전투부터 운용되었고 이후 지상군에 대한 공군의 항공지원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Robert F. Futrell, *The US Air Force in Korea 1959-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SAF, 1983), pp. 81-83.

100)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p. 441-442. 1일 포탄 사용량이 105밀리 화포 300발, 155밀리 곡사포 250발, 155밀리 평사포와 8인치 화포 200발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에서 28일 어간에 지암리 일대에서 사살된 적이 일일 수천 명에 달했다.<sup>101)</sup> 대규모로 전투나 치열한 교전을 치르지 않고 이와 같이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은 아군의 공중폭격과 포병화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6) 작전지속능력(sustainability)

작전지속능력은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투 활동을 위해 전 작전기간 동안 요망되는 수준의 전투력 집중과 작전템포를 유지해 주는 능력<sup>102)</sup>으로 전역이나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전투부대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당시 중공군은 병참선 신장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작전지속능력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제5차 2단계 작전 시 18일 만에 6개군 18만 명이라는 대병력을 서부에서 중동부로 이동하여 완벽한 작전적 기습을 달성하였으나 유엔군의 중심지역에서의 병참선 차단과 자체 보급능력의 한계로 인해 작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다. 중공군의 포로 심문에 의한 결과 제63군 188사단 한 병사는 “한국으로 투입된 이후 대대는 제대로 장비 보급을 받지 못했다. 나는 탄약 보급을 3번 받았다. 유엔군의 병참선 공격으로 보급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한때는 소총수에게 10발의 탄약만 휴대하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sup>103)</sup> 결국 이러한 작전한계점을 고려하지 않은 제5차 제2단계 공세는 작전실패와 대량피해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반면 유엔군은 오히려 중공군이 작전지속능력이 5-7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유엔군의 반격작전 시기를 결정하였다. 중공군의 2단계 공세

101)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4호; Billy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0), pp. 479-480.

102)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대전: 육군본부, 2006) p. 497.

103)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정보보고 제241호 부록2.

가 5월 16일 시작되었는 바 밴플리트 사령관은 전황 판단 결과 5월 20일 대공세를 결심하고 디토네이트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중공군이 발간한 자료에도 당시 중공군의 전투지속능력의 문제점과 유엔군의 반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리지웨이 장군은 아군의 후방지원 능력을 간과(總計)하고 아군의 진공(進攻)이 5일째 접어들어 양식과 탄약이 대부분 소모되고 사기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군 제7사단을 주력으로 하고 각 사단별 약 18,000명, 남한군의 4개 군단과 13개 사단의 병력으로 전차, 기계화보병, 포병으로 조직된 소위 특견대(特遣隊)를 23일 새벽 도로를 타고 반격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번 적의 반격은 지난 전투 중 가장 견고하고 병진했던 전략이었다.<sup>104)</sup>

### (7)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작전기간 중에 유엔군은 선전 전단과 확장기에 의한 심리전 방송을 통해 심리전을 수행하였다. 선전 전단은 C-47 항공기 등을 이용하였고 사단 작전지역 전방에 통상 20만에서 30만 장정도 살포하였다. 작전지역에서 획득한 포로를 대상으로 심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 중 수용된 포로는 총 254명이다. 이 포로 중에서 심문을 받았으며 보고가 완료된 건은 49건이다. 확인한 결과 전단의 영향을 받았다: 12명, 확장기의 영향을 받았다: 4명, 둘의 영향을 모두 받지 않았다: 24명,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았다: 1명, 무응답: 8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단의 효율성에 대한 포로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이다. 전단의 영향을 받은 12명 중 1명은 전단을 읽기 전에 투항하기로 결심하였고, 5명은 전단을 보거나 내용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다른 4명은 전단을 보았으나 문맹이라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영향을 받았다.”<sup>105)</sup>

104) 楊鳳安, 王天成 공저, 『北緯38度線-彭德懷與 朝鮮戰爭』(해방군출판사, 1999), pp. 355-359.

105) 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IX Corps, 1951), 작전보고 제665호 부록 심리전작전보고 제13호(1951년 5월 25일).

또한 항공기에서 실시한 심리전 방송은 들을 수 있었지만 언어 문제와 소음 등으로 인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포로들의 일반적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실시한 선전활동은 커다란 효과는 없었지만 일부 적병(敵兵)들이 선전물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며<sup>106)</sup> 나아가 도주하는 중공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유엔군에 유리한 전장 분위기로 바꾸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7. 맺 음 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미 육군대학원(Army War College)의 모토를 다시 생각하면서 중공군의 유엔군의 제3차 공세기간 중 중동부 전선인 가평과 화천 일대에서 벌어진 중공군과 미 제9군단과의 전투를 재조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제9군단에 의한 지암리 포위 및 화천진격 작전은 기습공격으로 시작한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초기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후 과감히 공세이전(攻勢移轉)하여 38도선 이남에 진격해 있던 중공군을 지대 내에서 포위 섬멸한 귀중한 전투이다. 미 제9군단은 파죽지세로 남진해 오던 중공군의 공격을 용문산 일대에서 격퇴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도주하는 중공군 제60군, 제63군, 제27군, 제15군, 제12군의 패잔병들을 지암리와 화천 일대에서 포위 섬멸하였다. 중공군은 중동부에서 중심 깊숙이 남진하였던 주력부대의 대부분이 38도선 이남에서 많은 피해를 입자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 그들의 전투의지가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거부해 오던 휴전협상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이후 유엔군의 제3차 공세작전 간 미 제

106) IX Corps, 위의 책, 작전보고 제665호 부록 심리전작전보고 제13호.

9군단의 미 제7사단, 제24사단과 한국군 제6사단이 수행한 지암리 포위섬멸전과 화천발전소 점령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2006년 평문으로 분류된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 등 한·미·중 3개국 자료를 참조하여 작전경과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사실적인 전투경과를 통해서 전사마다 상이하게 기술되고 있는 미 제24사단과 제7사단의 선두연대가 마평 일대에서 연결하기까지 전투기록도 재정리하였다. 또한 중공군 제180사단이 한미연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부대를 나누어서 어떻게 탈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군과 조우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요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전사연구 차원에서 작전지도, 작전한계점, 기동과 템포, 통합화력운용, 작전지속능력 등의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특히 중공군의 작전지속능력의 한계와 미 제9군단의 작전적 기동과 템포의 이점을 대비시켜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 제9군단 공격작전은 중공군과의 작전 주도권(主導權)을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공군은 제5차 1단계 공세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주공을 중동부로 과감히 전환하여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하였다.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공세를 실시함으로써 초기 기습달성은 하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능력의 한계와 누적된 전투피로로 인해 공격개시 5일 이후에는 공세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 제8군은 중공군과의 몇 차례 대규모 공세 간 터득한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즉, 적 전투지속능력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한 템포 늦은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였고, 공중우세권을 바탕으로 화력과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특히 보전 TF의 운용으로 중공군의 지휘부를 충격 속에 빠트리고 정상적인 지휘가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예하부대에서는 일부 패닉(panic)현상까지 발생하여 중공군 제180사단의 전멸을 초래하였다.

필자는 본 작전을 연구하면서 대규모 전역이나 작전의 승패가 지휘관의 작전지도 능력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점과 적의 취약점을 활용한 상대적 작전적 기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활용하여 제9군단이 보다 더 과감하게 공세를 펼쳤더라면

캔사스선 이남에서 더 많은 중공군의 주력을 포착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미 제9군단의 일부로서 한국군 제6사단이 수행한 지암리 포위섬멸전의 전과가 올바르게 재조명되고 나아가 6·25전쟁 제60주년을 맞는 우리 군의 상무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4. 30, 심사완료일 : 2010. 5. 10)

주제어 : 춘천, 지암리, 화천, 중공군, 미 제9군단, 한국군 제6사단, 사단장, 보전  
특수임무부대, 포위 섬멸, 작전지속능력

<ABSTRACT>

## The CCF's 2nd Attack of the 5th Offensive and the US IX Corps' Jiam-ri Envelopment & Hwacheon Offensive Operations

Jang, Sam-yeol

The US IX Corps' Jiam-ri envelopment and Hwacheon advancement operations were a valuable battle in which the corps defended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2nd attack of the 5th offensive effectively and conducted counter-offensive resolutely, then enveloped and destroyed the CCF units who had advanced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In this essay, the focus is on the research of Jiam-ri envelopment battle & Hwacheon power-station restored by the US IX Corps during the UN Forces' 3rd offensive. I recomposed the planning process of the operations from many angles by referring to materials such as US IX Corps Command Report which was recently declassified and other documents published in the US and China. I summarized the battle records up until leading elements of the US 24th Division and US 7th Division had linked in the area near Mapeong, which is described differently in all war history, through realistic battle development. I also reorganized the destruction process of the CCF 180th Division.

Moreover, I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fantry-Tank Task Force (TF) employed by the US IX Corps against the CCF units and the reaction of CCF against the US TF. The process of the destruction of CCF units near Jiam-ri by the ROK 6th Division and the process of the occupation of the Hwacheon power-station after they changed the operational zone, were reorganized, too. For user-based war history research, I used operational direction, culminating point, operational maneuver and tempo, integrated

fires, substantiality, and psychological warfare as analysis frames. I especially analyzed the limits of CCF's operations substantiality and advantages of the US IX Corps' operational maneuver and tempo by comparing them.

The US IX Corps' offensive looks like an operation initiative battle with the CCF. The CCF tried to recover from the failure of the 1st attack in the 5th offensive by envelopment and annihilation of the ROK Armed Forces located in the east area. However they suffered massive casualties by the counter-offensive of the US 8th Army, who had superior firepower and maneuver. As a result it provided a strategic turning point for the truce negotiation, caused the CCF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without further huge attack.

I wish that readers could understand the combat process and results of the ROK 6th Division operations destroying an estimated 2 CCF divisions in the Jiam-ri envelopment annihilation which was part of the US IX Corps operations, would be reexamined correctly through this paper. I also hope that our military minds would be enhanced.

Key Words : Chuncheon, Jiam-ri, Hwacheon,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the US IX Corps, the ROK 6th Division, Division Commander,  
Infantry- Tank Task Force, Envelopment & Annihilation, Substantiality